

1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7763.95 (+33.13)	996.93 (+45.30)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3.904 (+0.023)	1531.30 (+7.10)

최태원 SK그룹 회장
시팩토리 후보지로
일본 지목
02



‘N% 성과급’ 주총 부결시 직원들 빈손

삼성, 내년 주총서 결정할 듯 주주의견 반영 길 열려있어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삼성전자에 가치분 소 착수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이른바 N% 성과급을 두고 주주의 견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성과급 자체는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하기로 하면서, 개정 상법상 자사주 처분에 필요한 주총 승인이 매년 관문으로 남아 주주 의견이 반영될 절차가 살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총이 부결하면 직원들은 자사주를 할 수도 받지 못한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가 보유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은 성과급 합의를 아닌 지급 수단인 자사주 처분으로, 현금 지급이라면 주총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노사간 협약이 전액 자사주 지급을 명시해 주총승인이 막히면 이행 자체가 어려워진다. 지급 주식수와 가격도 주총 승인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번 협약의 승인 시점은 내년 정기주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나 오지만, 이사회가 임시주총을 소집해 연내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도입한 ‘영업이익



오늘 11시 킥오프... 대표팀, 훈련 매진 /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0일(현지 시간) 체코를 상대로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앞두고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에 위치한 베이스캠프 훈련장 치바스 바에 베르데에서 훈련하고 있다. /뉴스

10%’ 방식을 따라, 지난달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10년간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하는 특별경영성과급에 합의했다.

합의 이후 논란은 영업이익을 배당에 앞서 임직원에게 배분해 주주 몫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총 승인 절차가 남아 주주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열려 있는 만큼 주주의 견해 단정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합의 이행 여부는 주주 표결로 결정되며 매년 승인이라는 불확실성은 직원들이 떠안게 됐다.

정부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N% 성과급에

주총 결의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합법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사이 주주 행동은 본격화하고 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는 전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치분 소송에 착수하며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자사주 성과급의 주총승인 의무는 이미 개정 상법에 규정돼 있다.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 4721명이 참여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쳤지만, 발행주식의 0.1%에 못 미쳐 임시주

총 소집 청구 요건(지분 3%, 6개월 이상 보유 시 1.5%)에는 크게 모자란다. 정기주총 표결에는 지분 요건이 없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47%대에 달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 비중도 커, 부결 여부는 사실상 기관·외국인 표심에 달려 있다.

한국상사법학회회장을 지낸 권재열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안만 보고 주주의 견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차회 주주총회에서 승인 여부를 가려야 하고, 주주가 반대한다면 주총에서 부결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위험은 노사도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글로벌 먹거리 된 ‘K-푸드’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K-푸드’는 전 세계인의 일상을 파고들며 글로벌 식문화의 새로운 주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은 K-푸드는 전 세계 유수의 마켓과 식탁을 점령하며,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가 매일 즐기는 ‘세계인의 먹거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대표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와 성공 전략을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번 포럼은 풀무원, 대상 등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식품산업이 마주한 다음 단계의 도약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독창적인 제품 개발 스토리부터 한국 식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화에 성공한 비결까지, K-푸드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묻는 다채로운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K-푸드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진단하고, 동반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계획입니다.

- 주 제 : K-food, 세계인의 먹거리
- 일 시 : 2026년 6월 17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샘 올트먼 방한... 삼성·카카오 회동

오픈AI CEO, 오는 14일 입국 네이버 경영진 회동 가능성도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사진)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잇달아 찾는다. 삼성전자는 AI 전환(AI)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카카오에서는 AI 서비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입국한 뒤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를 방문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만난다.

양측은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만남에서는 기존 협



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오픈AI와 손잡고 ‘챗GPT 포 카카오’를 공개하는 등 AI 생태계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과 AI 에이전트 서비스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트먼 CEO는 같은 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리는 ‘DX 인사이드 토크 #2’에도 참석한다. <3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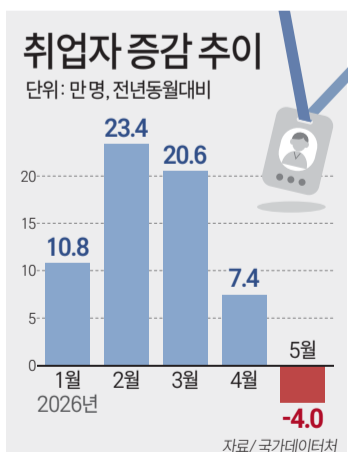


중동발 고용 충격 현실화... 5월 취업자수 감소

데이터처, 전년비 4만명 줄어 계업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 제조·농림어업 등 감소폭 커

국내 취업자 수가 2024년 12·3사태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중동발 충격으로 원자재·원재료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영향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만 명 감소했다(-0.1%). 월간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한 것은 비상계업 사태 때인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4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14만명), 농림어업(-12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도소매업(-3만6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특히 제조업이, 중동 사태의 여파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크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 역시 25개월째 취업자 감소를 지속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17만1000명), 30대(6만2000명), 50대

(2만5000명)에서는 증가했으나 20대(-25만1000명)와 40대(-4만3000명)에서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급감했다.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수급 차질이 나타나고 있고,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 /사진 뉴스사
▲ 이 대통령 “음주강요 등 직장 내 갑질 꿈도 못 꾸게...내각에 조치 지시”

▲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12일부터 시행
▲ 추, 국가소송 패소 노동자에 소송비 청구 두고 “안타깝지만...법이 그렇다”

▲ 과격해지는 개표소 시위...경찰 “폭행뎀 검거”
▲ 검찰, ‘최태원 동거인 申 간첩’ 주장 유튜브에 징역 8개월 구형